

# 한국어 내포 상위 부정 가부의문문의 결합 제약: 태도 술어와의 상호작용 분석

강아름  
(충남대학교)

**Kang, Arum (2025). Embedded high negation polar questions in Korean: Constraints and interaction with attitude predicat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3(1), 1-22. This study examines the semantic and pragmatic properties of High Negation Polar Questions (HNPQs) embedded within attitude predicates in Korean. Unlike standard yes/no questions, HNPQs exhibit speaker bias. Our analysis shows that HNPQs naturally combine with rogative predicates but are incompatible with veridical responsive predicates, which presuppose the truth of the embedded proposition, creating a semantic conflict with the biased expectation encoded by HNPQs. Furthermore, while nonveridical responsive predicates can syntactically embed HNPQs, they weaken or neutralize the inherent speaker bias due to their epistemic modal nature. Additionally, moru- 'not know' exhibits both an ignorance reading and an epistemic modal interpretation when combined with HNPQs, leading to distinct Logical Forms. By integrating possible worlds semantics and commitment space theory, this study clarifies the interaction between negation, interrogativity, and attitude predicates in Korean. The findings contribute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embedded polar questions and speaker bias, with implications for cross-linguistic analysis.

**주제어(Key Words):** 상위 부정 가부의문문(HNPQ), 태도 술어(attitude predicate), 가능 세계 의미론(possible worlds semantics), 헌신 공간 이론(commitment space theory), 의문문 내포절(embedded interrogatives)

## 1. 서론

본고는 상위 부정 가부의문문(High Negation Polar Question, 이하 HNPQ)이 내포절(embedded clause)에서 발생할 때 어떤 태도 술어(attitude predicates)들을 상위 술어로 삼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의미화용적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의문문의 의미는 그 답을 구성하는 명제들의 집합으로 표현되며(Hamblin, 1973; Karttunen, 1977; Groenendijk & Stokhof, 1984), yes/no question의 경우 암묵적인(covert) wh-word가 포함된다고 가정된다. 예를 들어, (1)-(3)에서 보이듯이 화자는  $p$  ‘비가 온다’ 또는  $\neg p$  ‘비가 오지 않는다’ 중 하나를 청자가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정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편향성(epistemic bias)은 존재하지 않는다.

(1)  $\llbracket \text{whether} \rrbracket = \{ \lambda p.p, \lambda p.\neg p \}$

(2)  $\llbracket ?(p) \rrbracket = \{ p, \neg p \}$

(3)  $\llbracket \text{내일 비가 오니?} \rrbracket = \{ \text{내일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 \}$

whether에 해당하는 의문 형태소가 명시적인(explicit) 의문문 보문소(interrogative complementizer)를 형성하여 태도 술어를 상위 술어로 취할 경우, 전체 문장의 의미는 주절의 상위 술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4)에서 ‘궁금하다’와 같은 의문형 술어(rognative predicates)가 상위 술어로 오는 경우 내포절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에 대해 화자가 궁금증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4) 내일 비가 오는지 궁금해.

반면, (5)에서 ‘알다’와 같은 사실성 인지 동사(factive cognitive verb)는 화자가 내포절 명제의 진위를 알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알다’의 부정형인 ‘모르다’는 화자가 내포절 명제의 진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5) a. 내일 비가 오는지 알아.

b. 내일 비가 오는지 몰라.

(6)에서 보이듯이, ‘추측하다’와 같은 양태 동사(modal verb)는 명제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표현한다.

(6) 내일 비가 오는지 추측 중이야.

그러나 HNPQ가 내포절로 등장할 경우, 기존의 의문문 내포문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었던 (4)-(6)의 태도 술어들과의 결합이 제한된다. HNPQ는 통사적으로 전치 부정(preposed negation) 구조를 가지며, 의미적으로 화자가 명제에 대해 편향된 기대(biased expectation)를 가지며, 화용적으로 해당 명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문 행위(questioning speech act)를 수행한다(김동식, 1981; 장경희, 1982; 장석진, 1984; 김미희, 2010; 박유경, 2020). 예를 들어, (7)에서 B의 HNPQ는 ‘내일 비가 온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편향적 기대를 반영하며, 이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7) 맥락: A와 B는 내일 날씨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A: 내일 비가 오려나?

B: 내일 비가 오지 않니?

B의 편향적 기대: 내일 비가 온다.

HNPQ가 내포절에서 발생할 때, 특정 태도 술어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궁금하다’ 혹은 ‘물어보다’와 같은 의문형 술어와 결합할 때 HNPQ의 의미는 유지되며, 화자의 인식적 편향이 내포절을 통해 드러난다. 이때 화자는 ‘내일 비가 온다’는 명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내포절의 부정 진리조건적 의미는 유지되지 않는다.

(8)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궁금해.

‘I wonder whether it would rain tomorrow.’

화자의 편향적 기대: 내일 비가 온다.

(9)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존에게 물어봤어.

‘I asked John whether it would rain tomorrow.’

화자의 편향적 기대: 내일 비가 온다.

반면, ‘모르다’는 내포절의 부정 진리조건적 의미를 유지하며, ‘비가 오지 않는다’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한다.

(10)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몰라.

‘It may not rain tomorrow.’

~~‘I don’t know whether it won’t rain tomorrow.’~~

‘모르다’는 인식 양태(epistemic modal) 해석을 유발하며, 화자는 비가 올 가능성과 오지 않을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지만, 후자에 더 편향적이다. 이에 따라 영어 해석에서는 부정소

not이 이를 표현한다. ‘모르다’는 앞선 (5b)의 ‘알지 못하다’의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HNPQ는 술어 ‘알다’와는 결합할 수 없으며, 결합했을 때 다음과 같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11)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알아.

본 연구는 HNPQ와 결합하는 태도 술어의 의미적 제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며 합성적으로(compositionally) 설명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HNPQ와 결합하는 태도 술어의 의미적 제약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HNPQ와 특정 술어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의미 차이는 어떻게 형성되며, 이를 합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모르다’가 일반 의문문과 HNPQ를 내포할 때 발생하는 의미적 중의성은 무엇이며, 그 해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HNPQ와 결합하는 태도 술어의 의미적 제약은 술어의 논항 요구 조건과 의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궁금하다’와 ‘묻다’와 같은 의문형 술어는 의문문을 내포할 수 있어 HNPQ와 결합할 수 있지만, ‘알다’, ‘기억하다’와 같은 사실형 술어는 명제의 진실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HNPQ와 결합할 수 없다. 또한, ‘모르다’와 같은 인식 양태 의미와 지식의 부정(knowledge negation) 의미에 대한 중의성을 포함한 술어는 내포질의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HNPQ의 편향된 기대(bias)와 해석이 충돌할 경우 결합이 제한될 수 있다.

둘째, HNPQ와 특정 술어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의미 차이는 술어가 요구하는 내포질의 성격과 HNPQ의 역할에 따라 형성된다. HNPQ는 질문의 성격을 유지하는 의문형 술어와 결합할 때 자연스럽게 해석되지만, ‘모르다’와 결합할 경우, 내포질의 의미적 특성이 변화하여 인식 양태 가능성(epistemic possibility)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는 HNPQ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특정 명제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반영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셋째, ‘모르다’가 일반 의문문과 HNPQ를 내포할 때 발생하는 의미적 중의성은 내포질의 부정적 가능성(negative possibility)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일반 의문문을 내포할 경우, ‘모르다’는 단순한 지식의 부정으로 해석되지만, HNPQ를 내포할 경우 내포질의 부정적 가능성을 반영하는 양태적 해석을 유발한다. 이는 HNPQ가 특정 명제의 사실성 여부를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기대와 가능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모르다’가 HNPQ와 결합할 경우, 단순한 정보 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양태적 판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HNPQ와 태도 술어 간의 결합 가능성과 의미적 제약을 분석하며, 가능 세계 의미론과 화용적 요인을 고려한 설명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의 문법, 태도 술어, 양태 의미론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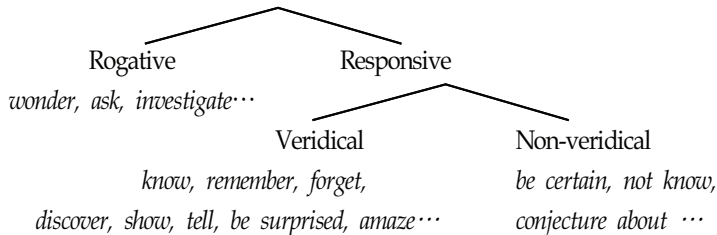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한국어 HNPQ와 의문 보문소 ‘ㄴ지/ㄴ지’와 결합하는 태도 술어의 분류에 대해 소개한다. 3장은 ‘ㄴ지 모르다’의 두 해석에 대한 서로 다른 LF 구조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HNPQ와 ‘모르다’의 상관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의문형 술어들이 HNPQ와 결합할 때 발생시키는 의미 해석과 ‘모르다’가 발생시키는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5장은 결론이다.

## 2. 한국어 의문문 내포와 태도 술어

### 2.1. 의문문 내포절과 태도 술어의 유형

본 장에서는 의문절 보문을 취하는 태도 술어의 유형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문 술어(interrogative predicates)에 대한 일반 이론을 검토하며, 다양한 범주로 분류되는 내포 구조의 차이를 살펴본다(Karttunen, 1977; Lahiri, 2002). Lahiri(2002)에 따르면, 의문문을 내포하는 술어는 크게 질문형(roqative) 술어와 대답형(responsive) 술어로 나뉘며, 질문형 술어는 의문문만을 보문으로 취하는 반면, 대답형 술어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모두 내포할 수 있다.

#### (11) 의문절 보문을 취하는 술어



대답형 술어는 의미론적으로 진언적(veridical) 대답형 술어와 비진언적(nonveridical) 대답형 술어로 구분된다(Spector & Égré, 2015; Theiler, Roelofsen, & Aloni, 2018). 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태도 주체가 내포된 질문의 실제 답변(actual answer)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며, 비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내포된 질문의 가능성 또는 잠재적 답변(potential answer)과의 관계를 표현한다. 예문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 질문형(Rogative)

- a. John wonders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 b. John asked Jake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13) 진언적 대담형(Veridical Responsive)

- a. John knows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 b. John forgot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14) 비진언적 대담형(Nonveridical Responsive)

- a. John conjectures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 b. John does not know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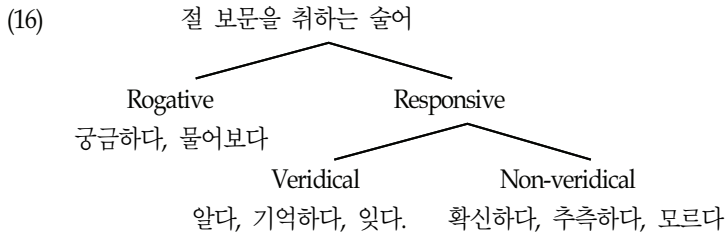
Spector & Égré(2015)와 Theiler, Roelofsen, & Aloni(2018)에 따르면, 대담형 술어는 태도 주체(attitude holder)와 내포된 질문의 답변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진언적 대담형 술어가 포함된 문장은 내포된 질문의 실제 답변(actual answer)을 전제하는 반면, 비진언적 대담형 술어가 포함된 문장은 내포된 질문에 대한 잠재적 답변(potential answer)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이러한 의미적 차이를 설명한다.

- (15) a. 진언적 대담형: “John knows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라는 문장은, 존이 p를 알고 있을 때 참이 된다. 여기서 p는 “Will it rain tomorrow?”라는 질문에 대한 실제 답변이다.
- b. 비진언적 대담형: “John is certain whehter it will rain tomorrow”라는 문장은, 존이 p를 확신할 때 참이 된다. 여기서 p는 “Will it rain tomorrow?”라는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변이다.

진언적 대담형 술어가 포함된 (15a)의 문장은, 내일 비가 올지 오지 않을지 실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참이 된다. 반면, 비진언적 대담형 술어가 포함된 (15b)의 문장에서는 동일한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15b)는 비가 올지의 여부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태도 주체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5b)는 존이 비가 올지 확신하는 경우 참이 되며, 여기에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한 가지 선택지일 뿐, 실제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2. 한국어 태도 술어의 의미적 분류와 HNPQ의 결합 가능성

이제 한국어에서 HNPQ가 내포절로 올 때 어떤 태도 술어와 결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자. 영어와 유사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HNPQ는 질문형 술어와 결합할 때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이는 HNPQ가 본래 화용적으로 해당 명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문의 역할을 수행하며, 화자의 인식적 편향(epistemic bias)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7)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궁금해.

‘I wonder if it won’t rain tomorrow.’

(18) 나는 친구에게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물어봤어.

‘I asked my friend if it wouldn’t rain tomorrow.’

반면, HNPQ가 진언적 대답형 술어와 결합할 경우 문장은 어색해진다. ‘알다’와 ‘기억하다’ 같은 진언적 술어는 내포질의 사실성을 전제하는데, 이는 HNPQ가 전달하는 화자의 인식적 편향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19)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알아.

‘I know whether it would rain tomorrow.’

(20)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기억해.

‘I remember whether it would rain tomorrow.’

비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내포질의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HNPQ와 결합할 때 화자의 편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비진언적 술어가 단순한 명제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능성의 고려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1)에서 HNPQ는 화자의 편향된 기대나 가능성 평가를 포함하지만, ‘추측하다’와 같은 술어는 가능성에 대한 열린 해석을 허용하는 특성을 갖는다. 즉, 비가 올 가능성( $\neg p$ )과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 $p$ ) 모두를 고려하는 추측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논의하는 맥락에서 HNPQ의 원래 화자 편향은 약화된다.

(21)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추측해봤어.

‘I tried to guess whether it wouldn’t rain tomorrow.’

반면, (22)에서는 이러한 인식 양태 해석이 더욱 강화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문장은 인식 양태(epistemic modal)만을 강조하며, 특정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편향된 기대를 반영하지 않는다.

(22)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몰라.

‘It may not rain tomorrow.’

여태까지 의문 종속절과 결합하는 태도 술어의 유형을 분석하고, HNPQ가 내포절로 올 때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HNPQ는 질문형 술어와 결합할 때 자연스럽게 해석되며, 이는 HNPQ가 본래 의문문의 속성을 유지하며 화자의 인식적 편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반면, 진언적 대답형 술어와의 결합은 문장의 의미적 충돌을 초래하여 어색한 문장을 형성한다. 비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내포절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양태적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HNPQ와 결합은 가능하나 화자 편향의 의미는 약화되거나 사라진다.

### 3. 선행연구: HNPQ의 의미화용적 분석

#### 3.1. 헌신 공간 이론과 HNPQ의 발화 의미

본 장에서는 Krifka(2021)의 헌신 공간 의미론과 Goodhue(2022)의 HNPQ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HNPQ의 의미적·화용적 특징을 설명한다. Krifka(2021)의 헌신 공간 의미론은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공통 기반 내에서 헌신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특정 순간까지 받아들인 정보가 참인 세계들의 집합으로 헌신 상태를 정의한다. 공통 기반은 명제의 집합으로 모델링되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갱신된다. 예를 들어, 평서문  $\phi$ 가 단언되면 맥락 집합은  $\phi$ 가 참인 세계들로 제한된다.

$$(23) c + \phi = \{w \in c \mid \phi_w\}$$

그러나 Krifka(2015, 2017, 2021)는 명제가 발화되었다고 해서 즉시 공통 기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공개적으로 헌신을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Krifka는 화행을 표현하는 ActP(Act Phrase) 아래 헌신 구(Commitment Phrase,



CompP)라는 층위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발화자가 명제에 대한 헌신을 드러낸다고 제안한다. 헌신 공간은 대화의 가능한 전개를 나타내며, 새로운 헌신이 추가될 때마다 갱신된다.

$$(24) \llbracket [\text{ActP} \llbracket [\text{Act}^\circ \cdot] [\text{Comp} \llbracket [\text{Cm}^\circ \vdash] [\text{TP John came}] \rrbracket] \rrbracket] \rrbracket^{\text{SIS2}}$$

헌신 공간은 발화 행위를 기록하는 구조로, 새로운 발화가 추가될 때마다 갱신된다.

$$(25) \langle \dots; C \rangle + A = \langle \dots; C, C + A \rangle$$

예를 들어, ‘it rains’이라는 발화를 헌신 공간에 추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6) (C + \llbracket \text{‘it rains’} \rrbracket = \{c \in C \mid c \subseteq \llbracket \text{‘it rains’} \rrbracket\})$$

다음으로, 의문문이 헌신 공간을 어떻게 갱신하는지 살펴보자. Krifka(2015)는 의문문이 [Act0?]를 통해 청자에게 특정 명제에 대한 헌신을 요청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Does it rain?’이라는 질문은 청자가 ‘it rains’이라는 명제에 헌신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27) C_0 + \llbracket \text{Does it rain?} \rrbracket = C_0 + ?\phi = C_0 \cup \{C_0 + a \vdash \phi \mid c \subseteq \phi\} = \underline{C_0} \cup \{c \in C_0 \mid c \subseteq a \vdash \phi^{sa}\}$$

이 표현은 의문문이 청자의 헌신을 유도하며, 헌신 공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함을 보여 준다. 만약 청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하면, 헌신 공간은 원래 상태로 복귀하거나  $\neg\phi$ 에 대한 새로운 헌신 상태가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문문은 청자의 헌신 여부를 결정하며, 헌신 공간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Goodhue(2022)는 Krifka(2021)의 헌신 공간 모델을 확장하여 HNPQ가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의 헌신 상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헌신 연산자(COM)를 도입하여 HNPQ가 화자의 편향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설명한다. COM 연산자는 기호  $\vdash$ 로 표기되며, 특정 명제 p에 대해 화자가 공개적으로 헌신하고, 논박이 제기될 경우 이를 방어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연산자의 의미론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8) \llbracket \text{COM} \rrbracket^{\text{idg}} = \lambda p. \lambda w. \forall w' [wR_j w' \rightarrow p(w') = 1]$$

$$(29) \llbracket \text{COM} \rrbracket^{\text{idg}} = \lambda p. \lambda w. \text{COM}_{i,w} p$$

여기서  $j$ 는 판정자(judge)로서, 특정 명제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화자를 의미한다. 발화 내 화행 연산자에 의해 판정자가 결정되며, 화자가  $j$ 로 설정되면 단언이 이루어지고, 청자가  $j$ 로 지정되면 질문이 수행된다. Goodhue(2022)는 HNPQ가 긍정 가부의문문(Positive Polar Question, 이하 PPQ)과 유사한 통사 구조를 가지지만, 전치 부정이 COM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의미적·화용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PPQ는 긍정 명제와 부정 명제를 동등하게 제시하며, 정보를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0) \llbracket \text{Does it rain?} \rrbracket^{i.d.g} = \{c \in C \mid c \subseteq \lambda w. \text{COM}_{A,W\phi} \vee c \subseteq \lambda w. \text{COM}_{A,W\phi}\}$$

반면, HNPQ는 전치 부정을 포함하며, 화자가 특정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하면서도 청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31) \llbracket \text{Doesn't it rain?} \rrbracket^{i.d.g} = \{c \in C \mid c \subseteq \lambda w. \neg \text{COM}_{A,W\phi} \vee c \subseteq \lambda w. \text{COM}_{A,W\phi}\}$$

PPQ는 청자가 긍정 명제와 부정 명제 모두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반면, HNPQ는 특정 명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청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강조한다. 따라서 HNPQ는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화자가 특정 명제  $p$ 에 대한 지지를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Goodhue(2022)는 HNPQ가 화자의 편향을 유도하는 과정을 화용 원리를 통해 설명한다. HNPQ를 사용하는 화자는 특정 명제에 대한 무지를 배제하며,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만약 화자가 정보 부족 상태라면, 일반적인 PPQ('Did John come?')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화자가 PPQ 대신 HNPQ를 선택했다는 것은 특정 명제에 대해 선입견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Didn't John come?'은 'John이 왔다고 보지 않느냐?'라는 함의를 담고 있으며, 화자가 'John이 왔을 가능성'을 기본값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 3.2. 한국어 HNPQ의 형식적 분석: 헌신 공간 관점

본 절에서는 Krifka(2021)의 헌신 공간 의미론과 Goodhue(2022)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HNPQ의 의미적 및 화용적 특징을 형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HNPQ가 화자의 편향과 확인, 확신과 상기의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논의하며, 헌신 상태 및 대화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이를 설명한다.

HNPQ에서 전치 부정은 표면적으로 명제를 부정하는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명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기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Ladd(1981),

Romero & Han(2004), Krifka(2017, 2021), Goodhue(2022)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전치 부정 이 ComP(Commitment Phrase) 위, 즉 대화의 화행적 층위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HNPQ의 통사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32) [ActP Did<sup>k</sup> ? [ComP  $\neg$ COM [TP John <sup>tk</sup> come ( $\phi$ ) ] ] ]

이 구조에서 부정 요소 n't는 TP(명제  $\phi$ )에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화자의 확신과 편향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HNPQ의 경우 '비가 오지 않니?'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된다.

(33) [ActP Did<sup>k</sup> ? [ComP  $\neg$ COM  $\vdash$  [TP 비가 오 <sup>tk</sup> ( $\phi$ ) ] ] ]

이 구조에서 화자는 명제  $\phi$ '비가 온다'를 기본적으로 참이라고 가정하며, 청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부정 요소'지 않'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명제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Goodhue(2022)의 논의를 따라, 본 연구에서는 HNPQ의 의미적 해석에서 두 가지 핵심 기제를 제안한다. 첫째, 헌신의 분할(Commitment Partition)로, 의문문이 청자의 헌신 상태를 분할하며 특정 명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둘째, 명제의 기본값 처리(Default Commitment)로, 전치 부정 의문문이 특정 명제를 기본적으로 사실로 가정하며, 청자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때 부정 요소는 명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헌신을 재확인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 HNPQ의 의미를 헌신 공간(Commitment Space)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분할된다.

- (34) a. COM<sub>A</sub>( $\phi$ ): 청자가  $\phi$ 를 인정하고, 이를 대화의 공통 기반에 추가한다.  
b.  $\neg$ COM<sub>A</sub>( $\phi$ ): 청자가  $\phi$ 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며, 대화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에 있는 상태로 남겨진다.

HNPQ는 헌신의 분할과 기본값 설정을 통해 대화 참여자 간의 역할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이미  $\phi$ 를 사실로 간주하며, 청자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비가 오지 않니?'는 아래와 같은 해석을 갖는다.

(35)  $\llbracket \text{비가 오지 않니?} \rrbracket^{\text{idg}} = \{c \in C \mid c \subseteq \lambda w. \neg \text{COM}_{A,W}(\text{비가 온다})$   
 $\vee c \subseteq \lambda w. \text{COM}_{A,W}(\text{비가 온다})\}$

즉 HNPQ는 특정 명제  $\phi$ 에 대해 화자가 기대하거나 편향을 가지면서도,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형태를 취한다. 또한, HNPQ는 청자가  $\phi$  또는  $\neg\phi$ 에 대해 헌신하도록 요구하며, 대화 맥락에서 정보적 의문으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HNPQ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청자의 헌신 요청으로, 화자는 명제  $\phi$ 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명확한 응답을 요구한다. 둘째, Grice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준수하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요청하는 구조를 갖는다. 셋째, 화자의 편향을 반영한다. 화자는  $\phi$ 가 사실일 가능성을 선호하지만, 청자의 확인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한다. 이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HNPQ가 ‘모르다’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의미적 제약과 변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4. HNPQ와 ‘모르다’의 의미적 관계

본 장에서는 ‘모르다’의 중의성과 HNPQ의 표현인 ‘지 않을지’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가능 세계 의미론(Possible Worlds Semantics)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설명한다. 앞선 논의를 기반으로 볼 때, ‘르지 몰라’는 인식 양태 가능성(epistemic possibility)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지 않을지’는 부정이 적용된 가능성 인식 양태와 결합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를 통해 두 표현이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표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 4.1. ‘모르다’의 다의성과 의미적 분화

한국어에서 ‘모르다’는 인식 양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용법과 ‘알지 못하다’는 의미의 동사 ‘모르다’로 해석될 수 있는 용법을 모두 포함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모르다’는 두 가지 주요 의미를 가진다. 첫째,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다’(예: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짐작’의 의미(예: “그 사업이 과연 잘될지 모르겠다”)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포할 수 있다.

#### (36) 모르다

[...을]

1.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다.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2. 사실을 알지 못하다.  
아랫마을에 물난리가 난 것을 아직 몰라?

[-느지]

1. (의문사 없이 쓰여)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짐작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낸다.  
친구가 화났을지도 모른다.  
그 사업이 과연 잘될지 모르겠다.

본고는 ‘모르다’의 중의성 용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코퍼스(corpus)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된 문어 형태소 분석 말뭉치(약 900만 어절)가 사용되었으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제공하는 SJ-RIKS Corpus를 활용하였다.<sup>1)</sup>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의문문 보문소 ‘르지’와 결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르지’가 포함된 5,216개의 용례 중 3,245개에서 ‘모르다’가 상위 술어로 사용되었으며, 그중 89.8%는 인식 양태의 의미, 10.2%는 ‘알지 못하다’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는 ‘르지 모르다’가 주로 인식 양태 가능성을 나타내며, 특정한 문맥에서만 ‘알지 못하다’의 의미로 해석됨을 시사한다. 특히, 의문사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르지 모르다’는 ‘을 수 있다 (be possible that)’의 의미를 형성하며, 인식 양태 가능성 표현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 (37) 희랍 신화를 보면, 자기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죽인 크로노스는 자기 자신도 그 자식에게 그 권좌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예언 때문에 자식을 낳는 대로 삼켜버리고 만다.  
≈ 희랍 신화를 보면, 자기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죽인 크로노스는 자기 자신도 그 자식에게 그 권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예언 때문에 자식을 낳는 대로 삼켜버리고 만다.
- (38) 남편이 오면 무슨 좋은 수가 생길지도 몰라요.  
≈ 남편이 오면 무슨 좋은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르지 몰라’는 특정한 가능성을 표현하며, 이는 영어의 might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의문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르지 모르다’는 ‘알지 못하다’의 의미를 유지한다.

- (39) 미리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랐다.  
≈ 미리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알지 못했다.
- (40) 순간 눈물이 펑 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 순간 눈물이 펑 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 (41) 오전의 투명한 햇살이 보도블럭 위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효철은 어디로 가야 가야 할지 몰라 앞이 캄캄했다.  
≈ ... 효철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앞이 캄캄했다.

1)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riksdb.korea.ac.kr/sjriks/sjriks.jsp>

의문사와 공기하는 경우, ‘모르다’는 단순히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4.2. 가능 세계 의미론을 통한 HNPQ와 ‘모르다’의 의미 비교

본 절에서는 Kratzer(1981, 1991)의 가능 세계 의미론을 활용하여 ‘르지 몰라’와 내포절 HNPQ의 형식적 의미를 분석한다. Kratzer의 가능 세계 의미론은 양태적 표현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양태 의미는 단순한 가능 세계들의 나열이 아니라 두 가지 주요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 번째 요소는 양태 기반(modal base)  $f(w)$ 로, 이는 특정 세계  $w$ 에서 화자가 고려하는 가능 세계들의 집합을 형성한다. 두 번째 요소는 순위 원천(ordering source)  $g(w)$ 로, 가능 세계들 중 특정한 세계들을 더 가능성 높은 세계로 정렬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양태적 의미가 결정되며, 다양한 양태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르지 몰라’는 인식 양태 가능성(epistemic modal possibility)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42) \llbracket \text{르지 모르다} \rrbracket = \llbracket \text{might} \rrbracket = \lambda p \exists w' \in \text{Best}(\cap f(w), g(w)) [p(w')]$$

이 의미 구조에서 존재 양화(existential quantification)는 특정한 가능 세계에서 명제  $p(w')$ 가 성립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즉, ‘르지 몰라’는 화자가 어떤 사건( $p$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영어의 *might*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might*의 의미는 인식 양태 기반(epistemic modal base) ( $\cap f(w)$ )를 통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세계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특정 명제가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보장이 없고, 단지 가능성이 있는 세계들의 집합 내에서 성립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어 ‘르지 몰라’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표현은 특정 명제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강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며, 화자가 믿음 세계(doxastic worlds) 내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르지 몰라’는 가능 세계들의 집합을 유지하며, 특정한 명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지 않는다. 둘째, 화자는 내포절 명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g(w)$ 에 의해 특정 세계가 상위에 랭크되지는 않는다. 셋째, 따라서 ‘르지 몰라’는 *might*와 유사하게 인식 양태적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르지 몰라’는 가능한 최적의 세계 중 하나에서 명제  $p$ 가 참이 될 가능성을 열어둡으로써, 확실한 명제가 아닌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알지 못하다 (not know)’의 의미와는 구별된다.

$$(43) \llbracket \text{모르다} \rrbracket = \llbracket \text{알지 못하다} \rrbracket : \lambda p \exists w' \neg \text{know}(w, p)$$

즉, (43)의 ‘모르다’는 단순히 지식 부족(lack of knowledge)을 나타내지만, ‘르지 몰라’는 특정한 명제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possibility assessment)하는 양태적 성격을 가진다.

다음으로 내포절 HNPQ를 구성하는 표현인 ‘지 않을지’의 의미를 살펴보자. 3장에서 분석한 한국어 HNPQ의 해석인 (35)을 기반으로 그 기본적인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44) \llbracket p\text{-지 않-} \rrbracket : \{c \in C \mid c \subseteq \lambda w. \neg \text{COM}_{A,W}(p) \vee c \subseteq \lambda w. \text{COM}_{A,W}(p)\}$$

이와 같이, ‘p-지 않을지’는 특정한 가능 세계에서 부정 명제  $\neg p$ 가 성립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청자가 이를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4.3. HNPQ 내포절에서 ‘르지 몰라’와 ‘지 않을지’의 해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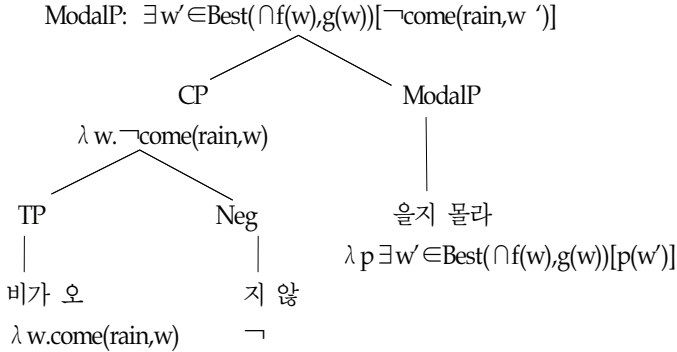
이전 절에서는 ‘르지 몰라’와 HNPQ의 형식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들이 각각 인식 양태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제 HNPQ 구조 내에서 ‘르지 몰라’가 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합할 경우 어떤 의미적 제약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HNPQ는 특정한 명제  $p$ 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반영하는데, ‘르지 모르다’는 해당 명제가 참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즉, 화자는  $p$ 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그 참값에 대해 확신하지 않으며, 특정한 가능 세계들에서  $p$ 가 성립할 수 있음을 열어둔다. 이를 가능 세계 의미론의 틀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45) \llbracket \text{르지 모르다} \rrbracket = \llbracket \text{might} \rrbracket = \lambda p \exists w' \in \text{Best}(\cap f(w), g(w)) [p(w')]$$

이때, ‘르지 몰라’는 가능 세계의 집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가능 세계들이 화자가 궁금해하는 세계들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HNPQ가 요구하는 기대를 반영하는 역할과 ‘르지 몰라’가 수행하는 불확실성 표현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HNPQ 내포절과 ‘르지 몰라’를 포함하는 문장을 각각 분석해보자.

(46) 인식 양태: 비가 오지 않을지 몰라



(46)은 인식 양태 가능성을 나타내며,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 특정한 세계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명제가 성립할 가능성을 표현한다. 이 해석에서 ‘비가 오지 않을지 몰라’는 특정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표현으로 기능하며,  $\text{come}(\text{rain}, w)$  명제의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특정한 가능 세계에서 이 명제가 성립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즉, ‘르지 몰라’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특정한 양태적 가능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몰라’가 ‘알지 못하다’인  $\lambda p \exists w' \neg \text{know}(j, w, p)$ 의 의미로 해석될 경우, HNPQ 내포절과 결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HNPQ는 특정한 명제  $p$ 에 대한 화자의 기존 믿음을 반영하며, 보통 화자의 편향된 기대를 표현한다. 그러나 ‘몰라’는 화자가  $p$ 를 알지 못함을 나타내므로, HNPQ 내포절이 요구하는 화자의 기대와 충돌하게 된다. ‘몰라’는  $p$ 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상태를 배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결국 HNPQ 내포절과 결합할 경우 의미적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HNPQ가 내포절로 발생하며 의문형 술어인 ‘궁금하다’와 결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ctP:  $\lambda w. \text{wonder}(j, w, \{c \in C \mid c \subseteq \lambda w. \neg \text{COM}_{A,W}(\text{come}(\text{rain}, w)) \vee c \subseteq \lambda w. \text{COM}_{A,W}(\text{come}(\text{rain}, w))\})$

CP

Comp  $\{c \in C \mid c \subseteq \lambda w. \neg \text{COM}_{A,W}(\text{come}(\text{rain}, w)) \vee c \subseteq \lambda w. \text{COM}_{A,W}(\text{come}(\text{rain}, w))\}$

COMP  $\{c \in C \mid c \subseteq \lambda w. \neg \text{COM}_{A,W}(p) \vee c \subseteq \lambda w. \text{COM}_{A,W}(p)\}$

TP  $\lambda w. \text{come}(\text{rain}, w)$

whether  $\lambda p. p \vee \lambda p. \neg p$

궁금해  $\lambda p. \lambda w. \text{wonder}(j, w, p)$

이러한 분석을 통해, ‘리지 몰라’와 HNPQ 내포절의 의미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리지 몰라’는 단순한 가능성 평가의 역할을 하며, 특정한 명제의 참/거짓 여부에 대한 화자의 편향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HNPQ 내포절 ‘지 않을지’는 특정 명제 p에 대한 화자의 기본적인 기대를 포함하며, 청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리지 몰라’가 HNPQ 내포절과 결합할 경우, HNPQ의 편향된 기대와 ‘리지 몰라’의 가능성 평가가 충돌할 수 있다. 이는 특정 문맥에서 의미적 모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맥적 단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HNPQ 내포절에서 ‘지 않을지’는 청자의 헌신을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리지 몰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작용하여 의미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4.4. 태도 술어의 의미적 제약과 HNPQ의 결합 가능성

본 절에서는 태도 술어의 의미적 특성이 내포절과의 결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HNPQ와 특정 술어 간의 결합 가능성을 논의한다.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NPQ는 전치 부정을 포함하면서도 화자의 인식적 편향을 반영하며, 특정 술어와의 결합에서 제약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술어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이 내포절을 구성할 때 의미적 제약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며, 이러한 결합 패턴이 인식 양태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태도 술어는 의미적 특성에 따라 내포절과의 결합 가능성이 달라지며, 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질문형 술어는 의문절을 내포할 수 있으며, 주로 궁금해하다, 질문하다와 같은 동사가 포함된다. 둘째, 비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명제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경우로, 추측하다, 모르다와 같은 동사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내포된 명제가 반드시 참이라는 전제를 가지며, 알다, 기억하다와 같은 동사가 포함된다. 다음 표는 각 유형의 태도 술어가 HNPQ를 내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인식 양태 의미를 유발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태도 술어 유형에 따른 HNPQ 내포 가능성 및 인식 양태 의미 여부

술어 유형	설명	예시	HNPQ 내포 여부	Epistemic modal 의미 여부
rogative	질문 내포 가능, 의문사 없는 의문문 허용	궁금해하다, 질문하다	0	X
nonveridical	명제의 가능성 있는 답변과 관계, 불확실성 포함 가능	추측하다, 모르다	X	0
veridical	명제의 실제 답변과 관계, 사실을 전제	알다, 기억하다	X	X

HNPQ는 본질적으로 화자의 인식적 편향을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특정 술어와의 결합이 제약될 수 있다. 각 유형별로 HNPQ와 결합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질문형 술어는 HNPQ를 내포절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1)과 같은 문장은 문법적으로 허용된다. ‘궁금하다’는 내포절이 의문형이어야 하므로 HNPQ가 사용될 수 있다.

(51)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궁금해.

‘I wonder whether it would rain tomorrow.’

질문형 술어는 본래 의문문을 내포하기 때문에, HNPQ 내포절이 의문문의 특성을 유지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화자는 특정한 기대를 가진 상태에서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형태가 된다.

비진언적 대답형 술어의 경우, 일반적인 의문문과 결합할 수 있지만, HNPQ와 결합할 수 없다. 이는 HNPQ가 특정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편향을 포함하는 반면, 비진언적 술어는 화자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52)와 같이 ‘모르다’와 HNPQ가 결합한다고 가정하면 문장은 어색해진다.

(52)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모른다.

‘It may not rain tomorrow.’

~~‘I don’t know whether it won’t rain tomorrow.’~~

이는 ‘모르다’가 특정 명제의 참/거짓을 결정하지 않는 정보 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HNPQ는 특정한 편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HNPQ 내포절이 정보 부족 상태를 표현하는 ‘모르다’와 결합할 경우 의미적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르다’는 ‘르지’와 결합하여 인식 양태 의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HNPQ를 내포절로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술어는 내포문의 사실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화자의 인식적 편향을 나타내는 HNPQ와 결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3)의 문장은 비문이다.

(53)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안다.

intended: ‘I know whether it would rain tomorrow.’

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내포절의 명제가 반드시 참이라는 전제를 가지므로, 질문형 내포절을 요구하는 HNPQ와 의미적으로 충돌한다. 마찬가지로, 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인식 양태 의미를 지닌 표현과도 결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4)의 문장은 의미적으로 충돌하여 어색하다.

(54) #내일 비가 오지 않을지 모른다고 안다.

# ‘I know that it may not rain tomorrow.’

‘안다’는 내포절의 사실성을 전제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어 의미적 모순을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HNPQ는 특정 명제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질문형 술어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반면, 비진언적 술어와 결합할 경우, HNPQ의 본래 의미인 화자의 편향성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비진언적 술어가 인식 양

태 가능성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방향의 기대보다는 열린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또한, 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내포절의 사실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질문형 내포절을 요구하는 HNPQ와 결합할 수 없다. 이는 HNPQ가 특정 명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이미 해당 명제가 사실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의미적 충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HNPQ가 내포절에서 발생할 때 특정 태도 술어와의 결합 관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의미·화용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의문문 의미론 및 태도 술어의 유형을 검토하고, 가능 세계 의미론을 활용하여 HNPQ의 의미적 제약을 형식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HNPQ는 일반 의문문과 달리 화자의 인식적 편향을 반영하는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인 yes/no 질문이 긍정과 부정을 동등한 정보 요청 행위로 구성되는 반면, HNPQ는 특정 명제를 기본적으로 참이라고 가정하는 화자의 기대를 포함하며, 청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HNPQ가 내포절에서 발생할 경우, 상위 술어의 유형에 따라 결합 가능성이 달라지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의미론적 현상이다.

둘째, 본 연구는 태도 술어를 질문형 술어, 비진언적 대답형 술어, 진언적 대답형 술어로 분류하고, HNPQ와의 결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질문형 술어는 HNPQ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반면, 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내포절이 반드시 참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HNPQ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진언적 대답형 술어는 불확실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HNPQ와 결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HNPQ의 본래적 의미인 화자의 편향성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비진언적 술어가 인식 양태 가능성을 유지하는 반면, HNPQ의 특정 명제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능 세계 의미론을 적용하여 ‘르지 모르다’와 ‘지 않을지’의 의미를 비교 분석한 결과, ‘르지 모르다’는 인식 양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반면, ‘지 않을지’는 특정 명제에 대한 부정적 가능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혔다. 특히, ‘지 않을지’가 HNPQ 내포절에서 사용될 경우, 화자는 특정 명제의 부정을 직접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명제가 참일 가능성을 전제 한 상태에서 청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석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르지 모르다’는 특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화자의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HNPQ 내에서 ‘지 않을지’는 청자의 헌신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며, 기존 정보에 대한 재확인을 요구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HNPQ 내포절이 단순한 가능성 평가를 넘어, 대화 참여자 간의 정보 상태 및 인식적 태도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HNPQ의 해석을 현신 공간 이론과 결합하여 설명하였다. Krifka(2021)의 이론에 따르면, HNPQ는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청자의 현신을 유도하는 발화 행위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 HNPQ가 화자의 기대를 반영하는 방식과 태도 술어의 내포절 요구 조건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HNPQ가 단순한 질문 행위를 넘어 특정 명제를 전제로 하며,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적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기술하고, HNPQ의 의미론적 제약을 태도 술어와의 관계 속에서 형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가능 세계 의미론과 현신 공간 이론을 접목하여 HNPQ의 해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HNPQ의 사용 양상을 범언어적 비교를 통해 유형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유사한 유형의 의문문이 존재하는 다른 언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김동식. (1981). 부정표현의 의미적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6, 31-47.
- 김미희. (2010). 부정문에서의 화용적 함축. *언어와 정보*, 14(1), 85-110.
- 박유경. (2020). 한국어 가부의문문의 편향성 연구. *언어학 연구*, 36(1), 1-27.
- 장경희. (1982). 한국어 부정의문문의 화용적 분석. *한국어학*, 7, 45-68.
- 장석진. (1984). 한국어와 영어의 부정문의 비교 연구. *언어연구*, 20(3), 185-203.
- Goodhue, D. (2022). The Meaning of Negated Polar Questions. *Natural Language Semantics*, 30(2), 131-179.
- Groenendijk, J. A. G., & Stokhof, M. (1984). *Studies on the Semantics of Questions and the Pragmatics of Answ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msterdam, Amsterdam.
- Hamblin, C. L. (1973). Questions in Montague grammar. *Foundations of Language*, 10, 41-53.
- Karttunen, L. (1977). Syntax and semantics of ques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3-44.
- Kratzer, 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In Hans-Jürgen Eikmeyer & Hannes Rieser (eds.), *Worlds, wor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in word semantics*, 38-74. De Gruyter.

- Kratzer, A. (1991). Modality. In Arnim von Stechow & Dieter Wunderlich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639-650.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Krifka, M. (2015). Bias in Commitment Space Semantics: Declarative Questions, Negated Questions, and Question Tags. *Proceedings of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SALT)*, 25, 328-345.
- Krifka, M. (2017). Negated polarity questions as denegations of assertions. *Contrastiveness in information structure, alternatives and scalar implicatures*, 359-398.
- Krifka, M. (2021). Commitment Space Semantics: Theory and Applications. *Theoretical Linguistics*, 47(1-2), 35-75.
- Ladd, D. R. (1981). A First Look at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Negative Questions and Tag Questions. *Proceedings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CLS)* 17, 164-171.
- Lahiri, U. (2002). *Questions and answers in embedded contexts*. Oxford Studies in Theoretical.
- Romero, M., & Han, C.-H. (2004). On Negative Yes/No Ques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5), 609-658.
- Spector, B., & Egré, P. (2015). A uniform semantics for embedded interrogatives: An answer, not necessarily the answer. *Synthese*, 192, 1729-1784.
- Theiler, N., Roelofsen, F., & Aloni, M. (2018). A uniform semantics for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complements. *Journal of Semantics*, 35(3), 409-466.
-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립국어원.  
민족문화연구원. 세종 형태어미 분석 코퍼스(SJ-RIKS)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  
<http://riksdb.korea.ac.kr/sjriks/sjriks.jsp/>.

## 강아름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조교수  
전화: (042) 821-6393  
이메일: arkang@cnu.ac.kr

Received on February 14, 202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2, 2025

Accepted on March 31, 2025